

바다에서도 와이파이 팡팡

군산, 내달 목표 연안여객선
4척 대상 와이파이 구축키로

정보통신기술(ICT)이 바닷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및 선박 항해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LTE 라우터를 이용한 선박 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 바다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2024년 4월 서비스 목

표로 고군산군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및 도서 주민들은 장시간 여객선 승선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돼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무했던 것이 사실.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런 불만에 공감한 군산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승객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설치에 나섰다.

여객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2024년 4월부터는 여객선에서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을 통해 도서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역시 올해 본격 시행되는 와이파이 서비스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데이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여객선은 어청도, 연도, 말도, 개야도 등 군산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4척으로,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설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전라매일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010면 지역

전북도민일보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010면 지역

<군산시>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

군산시, 연안여객선 대상

공공와이파이 구축·서비스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 및 주민과 관광객 편의성 제고 기대

정보통신기술(ICT)이 바닷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및 선박 항해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LTE 라우터를 이용한 선박 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 바다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2024년 4월 서비스 목표로 고군산군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및 도서 주민들은 장시간 여객선 승선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돼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무했던 것이 사실.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런 불만에 공감한 군산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승객들의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여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설치에 나섰다.

여객선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2024년 4월부터는 여객선에서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을 통해 도서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향후 무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여객선은 어청도, 연도, 말도, 개야도 등 군산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4척으로,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설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박수현 기자

군산시가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섬 여행객들의 편의 증진 및 선박 항해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LTE 라우터를 이용한 선박 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어청도, 연도, 말도, 개야도 등 군산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4척이다

따라서 바다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져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및 도서 주민들은 장시간 여객선 승선에 따른 인터넷 이용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군산시 정보통신과 고영숙 과장은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설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섬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진북연합신문

군산소룡1℃ 착한기업 현판 전달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길훈)에서는 22일 소룡1℃ 동행기업인 OCI, SG에너지, 성일하이텍, 삼일건설, 새남건설, 풍림파마텍, 이엔플랜트 7개 기업에 자체 제작한 착한기업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소룡동은 소룡1℃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소룡사거리 부근 화재 현장에 가로환경 개선과 함께 소룡1℃ 기업 참여를 홍보하고자 가설울타리를 설치했고 9월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참여 홍보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12월에

는 소룡1℃ 프로젝트 참여 독려와 홍보를 위해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입구에 참여업체 명예의 전당 현판을 제작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최근 협약을 체결한 (유)이엔플랜트를 포함해 7개 기업이 참여했고 많은 기업들이 동참의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 당초 25년까지의 참여 기업목표를 10

개소에서 20개소로 상향하기에 이르렀다.

상생기금 역시 올해는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의 2배인 2500만원이 적립됐고 2025년에는 5000만원의 적립이 예상되는 등 사업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기대이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산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고군산군도 여객선 무료 와이파이 제공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010면 지역

고군산군도 여객선 공공와이파이 설치

군산, 새달부터 4척 이용 가능

군산지역 도서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에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다.

군산시는 바닷길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및 선박 항해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서 연안여객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내달 서비스를 목표로 고군산군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동안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로 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여객선은 어청도, 연도, 말도, 개야도

등 군산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4척으로 LTE 라우터를 이용한 선박 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로 바다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산시는 이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통해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과 섬 주민들은 장시간 여객선 승선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에는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돼 있지만, 섬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인 여객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전혀 없어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호소했다. /군산=강경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4월부터 고군산군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

이번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으로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 및 도서 주민들은 장시간 여객선 승선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여객선은 어청도, 연도, 말도, 개야도 등 주요 관광지를 운항하는 4척이다.

/군산=김기현기자

새만금일보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013면 동행



군산 옥산면 주민자치회, 청암산 환경정비

군산시 옥산면 주민자치회가 22일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암산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봄을 맞이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마을 경관을 선사하고자 옥산면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됐다. 이날 옥산면 주민자치위원들과 직원들은 청암산 등산로와 수변로 등 산 곳곳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암산 환경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진호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청암산의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위해 주민자치회 및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상근 기자

새만금일보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014면 동행

군산 개정면, 착한가게·착한가정 가입 잇달아

군산시 개정면 행정복지센터가 25일 착한가정 3가정, 착한가게 6개소에 착한가게 현판을 각각 전달했다.

개정면은 "면 소재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서면서 착한가게 신규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를 통해 올해 착한가게의 사회적 기여 문화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번 가입 업체는 연지농산, 웰스태양광, (주)군산종합모터스, 대동공업군산대리점, 경성농장, 그린타이어 등 총 6곳이다.

착한가게와 별개로 착한가정에 가입하는 주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착한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으로 매월 2만원 이상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나눔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단위 기부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개정면에서 새로 가입한 착한가정은 이태세, 채운석, 김갑봉 총 3가정이다. /유상근 기자